

홍성농장을 다녀와서



한우개량부 등록팀
팀원 신승규

경남남도 서북부 지역의 산간지대인 합천군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해인사로 너무나도 우리에게 알려진 고장이다. 이러한 문화와 역사의 전통이 깊은 합천에서 필자는 한우개량에 대하여 소신을 갖고 계획적으로 실행에 옮기며 열정적으로 모든 합천군의 한우 농가와 함께 한우개량을 하고 있는 홍성농장의 홍성표 사장을 만났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우개량은 당연한 것입니다.”

홍성표 사장이 한우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번식우 7두로 한우사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번식우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농장경영면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한우개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장의 경제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한우개량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약



홍성표 사장



홍성농장 전경



홍성농장 내부

■ 홍성농장의 농장규모 및 사육두수

용도	평수	관리 대상우	두수
우사 A동	60평	거세비육우	8
우사 B동	60평	번식우	22
우사 C동	78평	육성우	6
퇴비사	60평	-	-
관리사	60평	-	-
총 부지	650평	총 두수	36두

4년 정도를 일반적인 한우농가로 번식우의 기반을 만들 때쯤의 95년도에 개량농가로 참여하여 이후 나름대로의 소신과 계획을 가지고 한우개량에 대하여 노력한 결과 홍성농장에서 앞으로 이룩해야 할 개량방안을 만들 수 있는 농가로 성장하였다고 한다.

“합천의 혈통번식우의 기반은 정말 우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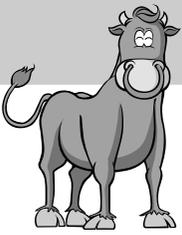
합천군의 한우 농가수는 약 5,000호 정도로 가구당 평균 3.2두의 한우를 키우고 있다. 이렇다보니 거의 합천군에 있는 농가는 경종농업과 함께 한우를 집집마다 가지고 있고 자연적으로 인공수정이 잘 이루어져 합천군 자체가 하나의 우수한 혈통번식우로 기반이 만들어져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성표 사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스럽게 한우의 개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합천의 우수혈통 번식우 기반이 유지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 위주의 개량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지도관리를 하기 힘든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개인농장이 아닌 전체 합천의 한우농가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합천축협(조합장 박중무)과 함께 한우개량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밀소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합천의 브랜드 소개》

천혜의 맑고 청결한 자연환경과 어울어져 최고의 한우를 만들고 있는 합천황토우는 합천에서 생산된 우수한 개체를 28개월 이상 비육하여 출하하고 있으며 한국중축개량협회에서 주최하는 2004년 제7회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는 육량우수상을 타기도 하였다. 또한 최고시설의 혈통경매시장(매월 15일, 25일)을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합천황토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농장검정을 위하여 우수한 개체에서는 10산차 까지 유도할 것입니다.”

개량을 시작한 1995년도부터 꾸준히 번식우의 자료를 생성하고 개량의 기틀을 만들면서 농장에서 실천하기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우량번식우 위주의 개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10년전부터 출하시 도축성적을 항상 정리하며 등급출현율이 좋은 번식우를 우량번식우로 분류하여 그 개체를 최대한 다산으로 유도하며 선발과 도태를 통한 번식우 세대교체를 실시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한우농가가 번식우를 도태시키는 산차는 2~3산차이지만 흥성농장의 평균 도태 산차는 5산차로 등급출현율과 함께 후대에 우량한 개체를 생산하는 번식우는 10산차까지 송아지를 생산한다며 조기도태는 아무리 후대에 좋은 개체가 생산되어 친모 및 형매를 찾아 송아지를 더 생산하려해도 이미 친모나 형매가 도태가 되어 버리는 현실이기에 농장의 자체 검정을 통한 우량번식우를 선발하기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러기에 흥성표 사장은 농장개량을 위하여 우량번식우에 대해서는 다산을 유도하는 것이 농장경영에 가장 큰 중점이라고 말한다.



파이프라인식 자동급이기



육성우는 개체상태를 보며 직접 급여

“각각의 개체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농가의 큰 특징은 파이프라인식 자동식급이를 이용한 개체관리이다. 물론 초기 소요비용면에서는 농가에 큰 부담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스탠촌(stanchion)과 함께 설치하여 번식우 및 비육우를 면밀하게 관찰하며 관리하는 것이 사료비의 절감으로 이어져 농장경영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번식우의 영양상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사료를 급여할 수 있어 균일화 된 BCS 상태를 유지시켜 번식우로서의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이러한 사양방식에 의하여 생성된 번식우의 사양 및 수정분만 자료를 직접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정확한 개체기록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출하성적 등을 꼼꼼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체크하고 수집하여 앞으로 흥성농장의 개량계획을 세워 목표달성을 위해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개량방법으로 육질등급이 우수한 개체를 생산할 수 있어 등급출현율 또한 남들 보다 뒤지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한다.

■ 흥성농장의 사양관리

우군	급여사료	급여량
번식우	알팔파	2.5kg/1일
	농후사료	2.5kg/1일
	볏짚	1.5kg/1일
육성우	건초	무제한
	농후사료	1.5~2kg/1일
거세비육우	볏짚	무제한
	농후사료	전기 : 체중의 약 1.7%
		중기 : 체중의 약 2%
후기 : 무제한		

이렇듯 흥성표 사장은 모든 한우개량 농가의 키워드는 우량번식우의 기반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필자에게 정말 열심히 말해 주었고 다시 한번 흥성농장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 또한 개량이라는 것을 피력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필자의 질문에 대해 거침없이 개량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었던 것에 대하여 흥성표 사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